

포커스-e제품

미니 DSLR? 하이엔드 시장에 새로운 돌풍 예고

삼성디지털이미징(주), 하이브리드 디카
'WB1000' 출시

●●● 취재 | 박지연 기자 |

삼성디지털이미징(대표 · 박상진, www.samsungcamera.co.kr)이 지난 6월 10일 지금까지 나온 하이엔드급 콤팩트 디카 중 가장 뛰어난 사양을 자랑하는 'VLJU WB1000'을 내놓으며 하이엔드 시장에 새로운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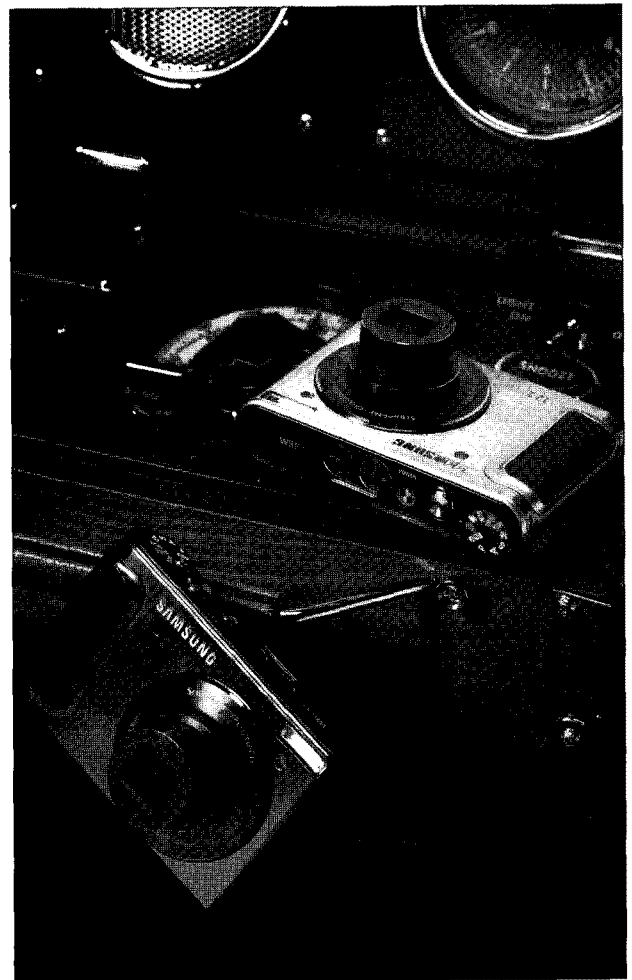
특히 파나소닉코리아와 올림푸스한국에 이어 삼성디지털이미징이 본격 하이엔드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구도에도 어떤 변화가 일지 주목된다.

삼성디지털이미징의 'WB1000'은 3인치 AM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스크린, 풀 메뉴얼, 24mm 광각, 1220만 화소 등 고사양을 갖춘 21mm의 슬림한 크기의 콤팩트 디지털카메라로 출시 전부터 '미니 DSLR'이라 불리며 기대를 받아온 제품이다. 아직까지 이 같은 사양의 콤팩트 디지털 카메라가 세계에서 출시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24mm 광각을 탑재한 콤팩트 디카는 파나소닉의 '루믹스 LX3'를 제외하고 전무한 시장 균을 형성하고 있어, 그만큼 기술적으로나 시장성에서 실험적 측면이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에서 'WB1000'은 하이엔드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WB1000'의 가장 큰 특징인 풀 메뉴얼 모드는 노출, 측광, 색온도, 셔터속도, 초점영역 등을 수동으로 조작해 자연스럽게 심도 깊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고, 스마트 다이얼을 채용해 다양한 기능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어, 작고 가벼운 콤팩트 크기에 DSLR의 수동 촬영 기능까지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제품으로 손색이 없다.

세계 최초로 3인치 대형 AMOLED 스크린을 채용, 일반 LCD 액정보다 훨씬 선명하고 빠르게 촬영한 사진을 볼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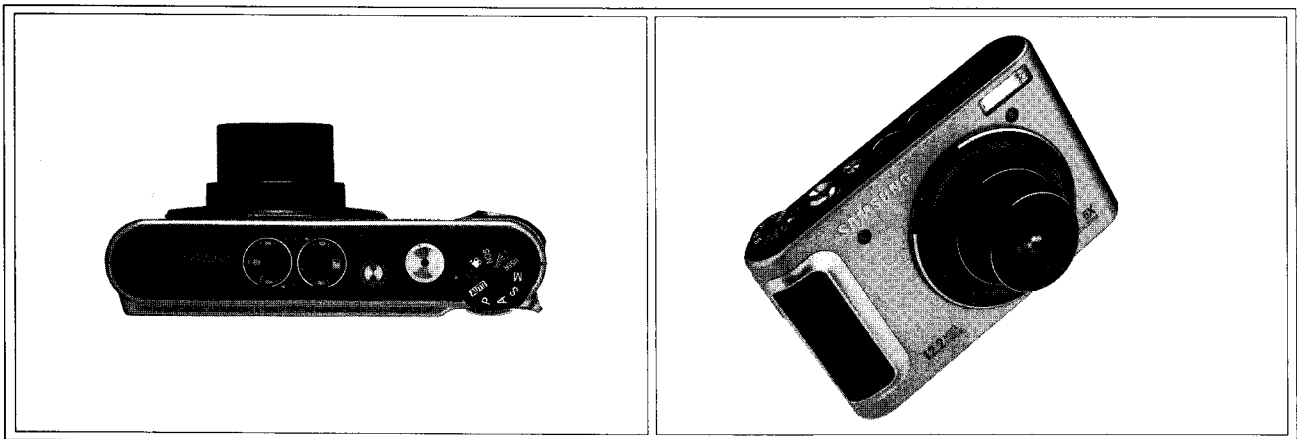
▶ 'WB1000'은 24mm 광각, 1220만 화소 등 고사양을 갖춘 21mm의 슬림한 크기의 콤팩트 디지털카메라로 출시 전부터 '미니 DSLR'이라 불리며 기대를 받아온 제품이다.

다. 이와 함께 어떠한 각도에서도 선명한 화질을 구현하며, 특히 강한 햇빛 아래에서도 메뉴 조작에 불편함이 없어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에 야외 활동을 위한 최적의 카메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WB1000'의 외관 상단에 탑재된 클래식한 디자인의 미니 대시보드는 메모리와 배터리 잔량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기

능성은 물론 아날로그적인 감성까지 더했다. 또 후면에는 손쉽게 돌리며 메뉴를 조작하는 '스마트 다이얼'을 채용, 다양한 기능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전원을 켜면 전원 버튼에 들어오는 파란 불빛과 스타일리시한 메탈릭 케이스, 안정적인 사용감을 위한 고무 재질의 그립 등 고급스러움을 돋보이게 하는 디자인도 눈에 띈다.



▶ 'WB1000'의 외관 상단에 탑재된 클래식한 디자인의 미니 대시보드는 메모리와 배터리 잔량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기능성은 물론 아날로그적인 감성까지 더했다.

회원사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국광학기계협회에서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광학세계'는 회원사 여러분들을 위한 정보지입니다. 광학세계의 회원사 동정 및 신상품 소개란은 회원사들의 홍보 및 정보교류 등을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인사 및 행사, 회사 업적 소개, 변경 사항, 신상품 출시 등 홍보 및 기사 게재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광학산업계 사랑방 구실을 하는 광학세계의 진정한 가치가 피어납니다.

- **연락처** : 광학세계 편집부
- **주 소** : (156-819) 서울시 동작구 사당3동 218번지 청보빌딩 4층
- **전 화** : (02)3481-8931
- **팩 스** : (02)3481-8669
- **이메일** : pjy@koia.or.kr